



“All New YTN” - 뉴스가 ‘확’ 달라진다

어젠다(AGENDA)를 선도하는 뉴스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편성 개편

YTN이 11월 7일 창사 이후 최대규모의 편성개편을 통해 확 달라진 뉴스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간다.

‘뉴스 내용과 형식 모두의 전면적 혁신’이라는 원칙 아래 지난 100일 동안 준비된 ‘새로운 YTN 뉴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어젠다(AGENDA)를 선도하는 뉴스’다. 시청자들이 공중파 뉴스와 비슷한 백화점식 보도보다는 ‘가장 알고 싶은’, ‘가장 관심이 가는’ 뉴스를 입체적, 다면적으로 보도해 주길 원한다는데 근거한 ‘수요자 중심의 뉴스’로의 전환이다. 개국 이후 10년간 ‘사회현상을 건조하게 보도한다’는 입장을 지켜온 YTN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이슈를 만들어가는 매체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9시 뉴스는 이제 그만”

이를 위해 YTN은 주요 시간대마다 3개 안팎의 이슈를 선정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풀릴 만큼 질과 양 모두에서 충분한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게 된다. YTN의 뉴스만 보면 이 시각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애기거리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뉴스의 엄숙성’에서 벗어나 대중문화와 스포츠 같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뉴스들을 과감하게 주요 이슈로 다룰 계획이다.

박진감 있는 현장중계와 뉴스 메이커들과의 직접 인터뷰 연결을 통해 YTN 뉴스 자체가 뉴스의 생산지가 되게 하고 미리 작성된 원고 중심으로 이뤄지던 앵커와 기자간의 생방송도 현장 중심의 생방송으로 바뀐다.

사건일지, 용어해설 등 풍부한 그래픽 뉴스와 현안에 대해 시청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묻는 이슈 폴(Issue Poll), 뉴스 퀴즈 등의 다양한 코너를 통해 시청자 눈높이의 ‘친절한 뉴스’를 만들고 이슈 중심의 뉴스가 빠질 수 있는 뉴스 다양성의 부족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영상 중심의 뉴스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뉴스

두 번째는 영상 중심의 비주얼(visual)한 뉴스다. YTN 뉴스는 생생한 영상 콘텐츠를 가급적 가공하지 않은 날것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80여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영상취재기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생산해 낸 고급 영상 콘텐츠들이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급된다. 시청자들이 인터넷에서 속보(速報)를 접하는 시대에 TV 뉴스는 질 높은 영상의 발 빠른 공급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새로워진다. 취재기자의 기사와 해석 중심이었던 ‘리포트’와 앵커가 읽어 내려갔던 ‘단신’ 대신 생생한 영상과 현장음이 중심이 되는 ‘영상 리포트’와 ‘영상 단신’이 방송뉴스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요한 뉴스메이커들의 육성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녹취 구성’, 오늘의 뉴스를 어제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영상 히스토리’ 등 새로운 콘텐츠들도 선보인다. 이런 새 영상뉴스들은 ‘돌발영상’의 계보를 잇는 YTN의 신상품이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스튜디오”

내용의 혁신을 담아내기 위한 하드웨어도 정비됐다. 메인 스튜디오가 될 제1 스튜디오가 리노베이션

공사를 거쳐 고급스럽고 미래 지향적인 칼라와 스타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최첨단 디지털시스템을 갖춘 뉴스룸(News Room)도 내년에 완공돼 유비쿼터스 뉴스 미디어로서의 틀을 완벽하게 된다

새로워진 조직 - CQ 신설, 책임 PD

취재와 편집 부서를 총괄 지휘하며 시간대별로 뉴스를 책임지게 될 CQ(Chief News Curator)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김홍규(CQ1), 신동윤(CQ2), 김승환(CQ3), 홍문표(영상CQ) 등 4명이 CQ로 임명돼 홍상표 신임 보도국장의 지휘 아래 6개의 뉴스팀을 이끈다.

6개 뉴스팀은 새벽부터 자정까지 6개의 주력 시간대 뉴스를 맡게 된다. 각 팀은 팀장인 책임PD가 중심이 돼서 두 시간짜리 대형뉴스와 30분짜리 일반뉴스를 담당하게 된다. (이것이 ‘2+1’의 새로운 편성원칙이다.) 뉴스팀장은 관리형 팀장이 아닌 뉴스제작에 직접 투입되는 실무형 팀장으로 부장급부터 평기자까지 폭넓게 보임돼 ‘일 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또 각 뉴스팀에는 책임 앵커와 책임 TD 등 스태프들이 지정돼 ‘책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6개 뉴스팀, 특화된 6개 대형 뉴스”

- 뉴스 1팀 <굿모닝 코리아>: 05:00—07:00
- 뉴스 2팀 <뉴스 오늘>: 08:00—10:00
- 뉴스 3팀 <뉴스 퍼레이드>: 11:00—13:00
- 뉴스 4팀 <뉴스의 현장>: 14:00—16:00
- 뉴스 5팀 <뉴스Q>: 17:00—19:00
- 뉴스 6팀 <뉴스 나이트>: 22:00—24:00

취재부서의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도 완료됐다. 이슈 중심 뉴스를 위해 사회부 사건기자들이 기동취재부에 배속돼 매일 매일의 이슈를 집중 추적하고 기존 취재부서들도 출입처 중심에서 이슈 중심으로 전환해 유연하게 운영된다. 이런 조직의 변화는 출입처, 생산자 중심의 뉴스 생산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수요자 중심의 뉴스로 옮겨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올 뉴 와이티엔’ (All New YTN)의 새 출발은 이제 시작됐다!

11월호 목차

- 12 | ▶ YTN에 바란다⑧ - 방송의 디지털화와 YTN 대응
- 15 | ▶ 제주지국 소식 - 방송은 협업
- 17 | ▶ 제 2회 해외리porter 교육 - 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
- 13 | ▶ 보도국장 인터뷰 -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새 출발하자
- ▶ 산악 동호회 - 맑은 하늘과 싱그러운 하늘
- ▶ 교육을 마치고 - 열정과 지식을 갖춘 리porter
- 14 | ▶ 에이즈 혈액주사제 유통 취재기 - 불상사막는 역할...
- 16 | ▶ 영상공모전 - 미숙함에서 오는 아낌없는 노력
- 18 | ▶ NEW YTN CI 워크숍

방송의 디지털화와 YTN의 대응



강상현 교수
(연세대 신문방송학)

방송의 디지털화는 물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은 이제 전 방송 매체에 일반화된 상황이 되었고, 그러한 디지털화 추세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IPTV와 같이 인터넷 망을 통해 다채널 방송 서비스가 가능하거나,

DMB폰과 같이 휴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방송 수신까지도 가능한 이른바 융합형 서비스 혹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역 서비스들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송사업자들은 나름대로의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24시간 뉴스 전문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YTN의 경우도 이점에서는 전혀 예외가 아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방송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름대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마도 모든 미디어가 안고 있는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디지털로 방송의 근본적인 변화 가져와

먼저 우리의 방송 환경이 변화해온 과정을 돌아보면 1990년대 초부터 거의 5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거듭해 온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전후해서는 SBS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제한된 공영방송 체제가 공민영 혼합 경쟁체제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했다. 그때만 해도 한정된 지상파 중심의 방송체제였다. 그러나 1995년에 이르러서는 다채널의 종합유선방송이 개국하고, 주요 대도시에 지역민방이 출범하였으며, 무궁화위성 발사로 다채널위성방송을 기약하는 그야말로 다채널방송 시대로 접어드는 분기점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을 전후해서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디지털위성방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아울러 새로 출범한 방송위원회의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디지털 방송 도입 정책이 확정됨으로써 방송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2001년에는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이, 그리고 2002년에는 디지털 위성방송이 본격 서비스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러한 추세의 진전 속에서 올해인 2005년에는 디지털 케이블TV 본방송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무엇보다도 개인휴대형, 이동형 멀티미디어방송이라고 하는 위성 DMB(5월)와 지상파DMB(12월)가 서비스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5년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BcN(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이 개시됨으로써 유비쿼터스 방송 시대로 이행하는 첫 발을 내디딘 해이기도 했다. 앞으로 5년 뒤인 2010년에는 이러한 BcN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지상파와 케이블TV 등에서의 동시방송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바야흐로 전면적인 디지털 방송 시대이자 유비쿼터스 방통융합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0년의 완전 디지털 방송 시대에서는 기존의 방송 망과 통신망은 물론 유무선망이 융합된 상황 하에서

수천 개의 디지털 다채널 방송이 서비스 되고, 질적인 면에서도 고화질, 고음질은 물론 쌍방향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및 각종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을 그리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또한 불가피한 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디지털화는 또한 전통적인 방송의 개념뿐만 아니라 방송의 존재방식과 방송 서비스 영역, 그리고 방송 산업의 구조와 방송 사업자와 방송 이용자간의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방송은 방송사가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다량의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일부 이용자 집단에게 특정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협송'(narrow-casting) 매체일 뿐 아니라, 개인 단위의 이용자가 선택하거나 요구하는 내용까지도 골라서 제공하는 '개송'(個送, personal casting) 매체로까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방송은 통신에 가까운 매체가 되고, 그 서비스 영역도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각종 데이터 서비스는 물론 실시간으로 상품 거래와 용역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생활 매체로 더욱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방송은 방송사업자보다는 방송 이용자의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 그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 셈이다.

경쟁력있는 뉴스 콘텐츠가 성공의 열쇠

이런 변화 앞에서 24시간 뉴스전문 채널인 YTN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먼저 디지털 시대는 곧 다채널 시대라는 점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방송인 '협송'과 '개송'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의미 있는 보다 전문화된 뉴스를 선호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뉴스전문 채널로서의 YTN의 존재 의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동시에 뉴스전문 채널 내에서도 뉴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욱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시대는 곧 이동형 미디어 시대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콘텐츠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동형 미디어의 콘텐츠는 고정수신형 미디어에 비해 보다 짧으면서도 하나의 아이템 내에서도 내용상 자기 완결성이 강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콘텐츠에 비해 비교적 길이가 짧은 보도 뉴스는 그 자

체가 DMB와 같은 이동형 수신단말에 적합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뉴스물의 이러한 원초적 장점을 이동형 미디어 시대에 제대로 살려나감으로써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더욱 높이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시대는 곧 디지털콘텐츠 시대라는 점에서 각종 뉴스물의 디지털 제작과 함께 기존 뉴스 프로그램의 디지털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각종 제작, 편집 장비의 디지털화는 물론,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편집 및 송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자동화된 종합 디지털 뉴스룸의 정비와 고도화에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축적된 뉴스물들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시켜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디지털 뉴스 자료화면 비축 측면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방송사 입장에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의 방송의 디지털화는 방송사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측면보다는 정책 당국의 국가적 목표 설정에 따라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디지털화를 강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동시에 내놓고 있기도 하다. 각종 설비 투자와 장비 구입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유리한 조건의 여러 지원책들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디지털 방송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 중에서 데이터방송을 이용한 TV전자상거래가 있다. 이는 디지털 방송 실시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 하에서는 뉴스나 어린이 프로 등에서는 그러한 상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면은 뉴스전문 채널인 YTN의 경우 디지털화의 경제적 장점을 살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보완책 강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에도 YTN 성공의 관건은 역시 경쟁력있는 뉴스 콘텐츠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할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뉴스는 YTN"이라는 명실상부한 이미지가 곧 YTN을 디지털 시대의 승자로 만들 것이다.

동정

원종호 기자, 카메라기자상 수상



원종호 기자(영상취재팀, 사진 오른쪽)가 '이구, 마지막 황세손 영결식'으로 제 4회 카메라

기자상(보도뉴스 부문)을 수상했다. 원 기자의 작품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의미와故 이구씨의 장례식만이 아닌 그 이면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시상식은 10월 15일 천안 상록리조트.

원종호 기자(영상취재팀, 사진 오른쪽)가 '이구, 마지막 황세손 영결식'으로 제 4회 카메라

이광범 사우, 장애인돕기 행사 열려



어스쿨에서 열었다.

이광범 사우는 10년 전부터 한국뇌성마비독립생활공동체 어우러기 회장을 맡아 장애인을 도왔다.

이광범(총무부) 사우가 뇌성마비 장애우를 돕기 위한 일일 호프를 10월 28일 YTN타워 인근에 있는 비

홍상표 보도국장 인터뷰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새 출발하자”



10월 1일 임명된 홍상표 보도국장으로부터 보도국의 운영 계획과 비전을 조승호 기협 YTN 지회장이 들어봤다.

1.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 부족한 제가 감당하기에는 솔직히 과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콘텐츠혁신이라는 화두로 변화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구성원들의 기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크다고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심없이, 양심에 부끄럼 없이 일하겠습니다.

2.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취재 기자나 PD, 카메라기자 할 것 없이 취재일선의 인력난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특히 신입사원 선발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구요. 하지만 인력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연계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 부담 없이 뽑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영적인 고려 때문에 시원스런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그 소요를 적정히 산출해 충원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입사원 선발문제도 논의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내년엔 신입사원 모집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이번 인사에서는 해설위원과 전문가 발령이 눈길을 끄는데 이 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특히 전문기자는 자격 요건과 선발 과정, 앞으로의 운용계획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 대형뉴스가 생긴다거나 깊이있는 해설이 필요할 경우 해설위원들이 경륜을 살려 방송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전문가 발령이 당초 전문가제의 실행 취지에 전적으로 합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력운용 구도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기자제 도입의 취지는 다매체 융합시대에 전문성있는 취재력을 확보하고 기자 직군의 조로현상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처럼 차장급만 돼도 현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기자로서 은퇴할 때까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자격요건과 선발기준 등 제도적 운용의 틀을 확립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희망자에 대한 재교육이나 연수 기회 부여 등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겠지요. 여하튼 앞으로 기협 등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자제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YTN의 지방 취재 여건은 이슈 중심으로 취재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지방의 취재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지방취재의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과 같은 지국운영구도와 인력으로는 이런 취약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보강돼야 하겠지만, 그것만이 지역 취재여건의 개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여러 당사자가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5. 이번 콘텐츠 혁신에서는 카메라기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오디오맨이 충분하지 못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와이어리스 마이크 같은 필수 장비도 많이 부족합니다. 영상취재 여건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 오디오맨 부족 등 인력문제는 영상취재팀 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공동 과제입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

- 해설위원과 전문가 자 모두 오랜 경력에 바탕한 전문성을 방송 품질향상에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임명된 것입니다. 해설위원들은 새로 신설될 주간단위의 ‘뉴스인물’ 대담 프로그램의 진행을 비롯해 역할을 설정해 나갈 것입니다.

비 문제도 해당부서의 의견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카메라기자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혁신 콘텐츠 개발에 열정을 모으고 있는 점을 고맙게 생각하며 여건 개선에 저도 특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 앵커도 휴가를 제대로 못 갈 정도입니다. 특히 야근시간대 앵커는 피로도가 높아 누구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스의 얼굴인 앵커들이 보다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 뉴스채널에서 앵커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취약시간대인 야근 앵커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지요. 지원 앵커를 야근에 투입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중입니다. 다만 앵커들도 여건은 어렵지만, 자기계발을 위해 좀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브랜드가치는 스스로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7. 이번 편성개편의 핵심은 우리의 역량을 주력시간대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말 뉴스가 지금처럼 길 경우에는 취재기자들의 주말 리포트 제작 부담이 여전히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말뉴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주말뉴스가 길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시간뉴스전문채널로서 현재 수준의 뉴스량과 길이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말 아이템도 리포트 위주에서 다른 분화콘텐츠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만큼 단순히 리포트 양을 기준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여건상 주말뉴스의 기초를 확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 이번 콘텐츠 혁신을 계기로 모두가 '한번 해 보자'는 결의가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보도국장으로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변화와 혁신의 정도를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확연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분위기를 바꾸는 게 단기적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청률이나 부수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정을 갖고,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나갈 때 우리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냉소주의는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특종상 취재기 - 에이즈 혈액 주사제 유통 취재

“불상사 막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8월, 2천3년부터 15개월 정도 끈질기게 다뤘던 ‘혈액’ 취재에 다시 뛰어 들었다.

1년 정도 만이었다. 계기는 에이즈와 관련된

소문 에이즈 수혈 사고가 발생했는데 쉬쉬한다는 것이었다. 출처는 대한적십자사 내부 제보자들이었다. 소문을 들은 뒤 내가 세운 가장 유력한 가설은 에이즈 혈액이 의약품에도 사용돼 유통됐고 당국이 이를 조용히 덮어두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취재를 통해 이 가설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실이 큰 역할을 했다. 고 의원실의 전경수 비서관은 신참내기 비서관이었지만 매우 열정적이었다. 전 비서관의 추진력과 치밀함 덕분에 목적으로 했던 관련 자료를 거의 확보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을 통해 에이즈 수혈 사고가 있었고 이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 2만 6천여 병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 나이가 보건당국과 대한적십자사가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에이즈 혈액으로 만든 의약품의 유통이다. 수혈 피해자는 한두 명에 불과하지만 의약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된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클 수 있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혈액제제 제조 과정에 바이러스를 없애는 불활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유통시켜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후속 취재를 통해 추가 보도를 했다.

두 번째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부실한 혈액관리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혈액관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난 2003년부터 계속 보도해왔던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말이다.

지난해 말 혈액 관련 보도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더 이상 혈액 관리 문제를 보도하지 않기를 바랐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알수록 그러긴 힘들었다.

내 가족을 포함해 누구라도 병원에서 수혈을 받게 되거나 혈액제제를 투여 받게 됐을 때 불가항력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나는 국가와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그런 불상사를 막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김승재(사회1부)

YTN단신

지역CATV방송국과 선거방송 제휴



YTN과 SO협의회는 11월 1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YTN 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5월 31일에 치러질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성공적인 방송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업무제휴 협약서에 서명했다.

YTN과 SO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민주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 1300만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한 지역 밀착형 매체인 케이블TV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케이블TV를 통한 선거방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의 이슈’ 등 SMS 서비스 제공

YTN은 11월 7일 대대적인 편성 개편과 12월 1일 YTN DMB 본방송 개시를 앞두고 날마다 YTN이 집중해 보도하는 ‘오늘의 이슈’와 긴급 속보를 사회 주요 여론형성 계층과 시청자들의 이동전화에 SMS(40자 내) 형태로 전달하는 YTN SMS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선 YTN 뉴스가 새롭게 달라지는 11월 7일부터는 YTN의 주요 취재원인 여론형성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YTN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오늘의 이슈’와 긴급속보 SMS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리포터 교육



해외방송팀이 주관한 제2차 ‘YTN 해외 리포터’ 교육이 9월 26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언론재단 등에서 열렸다. 이번 해외 리포터 교육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모두 12개 나라에서 온 15명의 YTN 해외 리포터들이 참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방송기사 작성과 영상촬영 등 방송 실무와 언론인으로서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YTN 해외 리포터들은 목요일과 토요일 방송되는 ‘글로벌 코리아’ 제작에 참여해 전 세계 동포사회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YTN인터내셔널은 현재 극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다.

‘YTN 10년사’ 발간



국내 최초로 24시간 실시간 뉴스 방송 시대를 연 YTN이 개국 10년을 맞아 10월 25일 ‘YTN 10년사’를 발간했다. 1년 여만에 제작된 ‘YTN 10년사’는 516페이지 분량의 5×7 변형판으로 화보, 1편 통사, 2편 실국이야기, 3편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YTN은 ‘YTN 10년사’를 정부기관과 공공도서관, 대학교, 주요 언론단체·기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YTN은 이와 함께 94분 분량의 ‘10년사 동영상 DVD’도 함께 만들었다. ‘10년사 동영상 DVD’는 역대 YTN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언과 회고록,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100% 동영상 사사 편찬은 국내 방송계에 처음이다.

DMB 워크숍



YTN DMB는 9월 28일, 29일 양일간 홍천 대명콘도에서 DMB워크숍을 갖고 12월 1일 본방송을 앞두고 정책기획, 채널운영, 데이터서비스, 기술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대토론회를 가졌다.

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식

YTN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이 후원하는 제9회 ‘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식이 9월 27일



YTN 본사에서 열렸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정수린 팀이 ‘디지털’을 주제로 만든 ‘0과 1, 온기를 품다’가 최우수상인 경기도지사 상을 수상했다. ‘0과 1, 온기를 품다’는 논리적 구성력과 주제의 함축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예년보다 20여 작품이 늘어난 109개 작품이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7개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벤처디자인상 대상에 ‘티알에스’

NDL이 출품한 다용도 스키가방 ‘티알



에스’가 벤처디자인상 대상을 차지했다.

YTN과 문화일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조달청이 공동후원한 벤처디자인상은 국내외에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 예정품 중 디자인을 통해 가치가 향상된 우수 제품을 선정, 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지국소식 - 제주

‘방송은 협업’



지난 14일, 제주지국에 내려온 지 두 달 만에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동기들과 여러 선배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서울 가는 길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절 보자마자 “잘 지냈어?”, “얼굴 많이 좋아졌다.” 등 반

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았던 질문은 역시 “지국 생활은 어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만났던 사람들이 지국생활에 대해 그렇게 궁금증이 큰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마침 저에게 사보에 글을 올릴 기회가 주어져 이번에 제가 지국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지국에 내려가는 다른 동기들처럼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뽀혀

지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고, 수습을 갓 땀 신입이라 더욱 더 열의를 갖고 생활을 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각오를 갖고 내려온 지국의 생활은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일단 지방이 갖는 특색들이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문화도 환경도 서울과는 많이 다르고 고향이 제주도이지만 8년 가까이 서울에서 생활을 해왔던 저로서는 고향이 어느새 다른 곳처럼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습을 떴고 난생 처음 출입하는 출입처에서 만나는 지방기자들의 모습에서부터 취재를 나가서 겪게 되는 일까지. 부딪히는 것 하나 하나가 처음엔 정말 새로웠고 낯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끔 겪는 일이었지만 우리 회사와 연합뉴스를 헛갈려 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 방송보다 낮은 인지도로 인해 지역주민들보다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더 알아본다는 점 등은 지국에서 근무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국에 내려와서 더욱 강하게 느끼는 남은 ‘방송은 협업’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지국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잘 적응해

나가게 된 것은 제주지국에서 같이 근무하는 다른 분들이 잘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적은 소규모로 운영돼 늘 같이 지내야 하는 지국의 특성상 대인관계가 틀어진다면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두 달밖에 안됐지만 근무하면서 접하는 어려운 점은 역시 한밤중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지난 15일 있었던 워크숍에서 이인배 광주지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인원이 적어 야근자가 없는 상황에서 야간에 생기는 일들을 다 챙기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제주지국보다 더 넓은 영역을 담당하고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다른 지국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 클 것입니다.

아직 내려온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지국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지나온 시간보다 가야 할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내려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또 지국의 상황을 나름대로 고려하면서 YTN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형 (제주지국)

동호회 - 산악회

맑은 하늘과 싱그러운 바람



오르고 그 기쁨을 만끽함으로써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심신을 맑게 할 수 있다. 또 그 과정을 통해 사우들 간의 두터운 친목을 쌓아 나가보자는 것이 우리 동호회의 목표다.

현재 35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데 회원들은 물론 사원모두와 함께 올 가을 단풍과 억새풀 산행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산악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다짐해본다. 이 글이 사보를 통해 임혀질 즈음은 아마도 매스컴에서 연일 단풍소식이 빠지지 않게 보도되는 뉴스중 하나 일게다. 보고 있자면 누구든 맘속 한쪽엔 ‘나도 저런 아름다운

일년 365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숨 가쁜 서울 한복판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 왔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바로 요즘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은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를 찾아 창고 한 구석의 배낭과 먼지 쌓인 등산화를 동여매고 찌든 때를 벗고자 들뜬 마음으로 산을 찾게 된다. 또 그 산은 찾아준 사람들에게 보은의 답례라도 하듯 두뇌의 청량함과 더불어 몸의 건강까지도 챙겨주는 아량에 인식해 하지 않는다.

이렇듯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산을 벗 삼아 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YTN산악회다. 지난 수년전 사내 동호회들이 태동할 당시에 만들어진 동호회치곤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모임의 성격상온 가장 보편적이고 거부감이 없는 친밀한 동호회가 아닐까 한다.

더구나 전문산악인이 아니어도 무리 없이 산을 찾아

단풍과 함께 산행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사우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우리산악회 가을 산행에 동참하라고 강추하고자 한다.

본인도 산행을 하기 시작하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실 산에 첫발을 내디디기가 어려웠지 두 번째, 세 번째 산행이 거듭되면서 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급기야 돈을 투자해 등산장비를 구입하면서 횡수가 잦아졌다. 이제는 제법 산에 대해 운운하며 다른 산악회에도 참여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듯 산은 등산화 정도만 있으면 별 다른 준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산행을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씩 그때그때 장비를 준비 하면 된다. 우리 산악회도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고 멋진 추억도 가지고 있다.

지난겨울 태백산 일출산행은 일과가 끝난 금요일 오

후 차량을 렌트해 회사에서 곧바로 출발했다. 태백산 인근 산장에서 추운 몸을 녹이며 잠시 눈을 붙인 후 동트기 두 세 시간 전 태백산 정상을 향했다. 워낙 유명한 축제기간이라서 전국에서 몰려든 산악인들과 어우러져 컴컴한 새벽 눈바람을 가르며 시든 역새와 눈 덮인 괴목사이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 가쁜 숨을 몰아가며 뜨거운 입김을 토해냈고 산 정상 계단에서 식은땀이 얼어 웅크리고 있는 사이 얼어붙은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일출의 장엄함에 모두 환호를 지르며 어린애처럼 좋아서 꺽충꺽충 뛰었다. 동호회원들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뚜렷해 살아 숨쉬는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정상에서 석유버너로 끓여 나뭇가지 주워다 대충 삼켜 먹은 라면과 그 국물 맛은 왜 그리도 못 잊겠는지.....!

우리 동호회는 몇 차례 산과 친밀감을 갖고자 서울 근교 산행을 위주로 해왔다. 물론 서울 근교의 산들은 우리들이 산행하기엔 매우 훌륭한 산들이고 앞으로도 우리산악회에서 주로 애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을엔 단풍과 함께 지방산행을 하고 겨울엔 설산일출산행도 빠지지 않으려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익히 알려진 명산들은 모두 다녀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금강산, 백두산행도 계획하고 있다.

요즘 회사가 한창 콘텐츠혁신에 따른 새로운 편성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새로운 콘텐츠의 성공이 우리의 가장 막중한 당면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뜨거워진 머리를 한번쯤 산을 찾아 맑은 하늘을 우러러 가슴속 깊이 싱그러운 바람결에 식혀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봄직도 나 혼자만의 생각만은 아니리라.

조용원 산악회 동호회장

영상공모전 최우수 작품상 - '0과 1, 온기를 품다' 제작기

'미숙함에서 오는 아낌없는 노력'



왼쪽부터 김은호, 이기민, 정수린, 최주현

상을 받고 난 후 주변 친구들이 수상 비결을 물을 때마다 던진 대답이다. 어떤 친구 녀석은 '수상용 멘트' 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상을 받고 난 지금도 우리들의 미숙함은 여전한 뿐이다. 하지만 미숙했기에 모든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충실히 받아들인 가르침을 아무런 의심 없이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지난 6월, 'YTN 영상공모전'에 출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학과 선배의 권유가 있었다. 당시로서는 제작 공부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번 출전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제작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에 모두 동의했기에 우리 4명은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YTN에서 상정한 '디지털'이란 주제에 도전하게 되었다.

사실 '디지털'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것은 우리 일상에 디지털의 보편화로 뭔가 이끌어 낼만 한 주제가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결코 만만한 주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디지털이 우리 일상에서 보편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

은 언론매체에서 이를 주제로 다루었다는 말이 되고, 이것은 곧 참신성 있는 이야기의 도출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참신성을 이끌어 낸다해도, 특정 소재에 치우친 나머지 '디지털'이라는 전체 주제를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디지털 라이프를 각각의 소주제 속에서 살펴 보자는 것이었다.

각각의 소주제는 디지털 라이프, 공동체, 의사소통, 음악, 신분격차로서 현대인의 생활 속에 파고든 편리한 디지털의 속성을 살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디지털의 속성이 지나친 기계화로 휴머니즘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도 착안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전통사회의 덕목들이 디지털의 속성에 함께 가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상이 이번 공모전 작품 <0과 1, 온기를 품다>가 탄생하게 된 기획 배경이며,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무려 한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기획과 연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 여름은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연일 30도를 넘는 날씨 속에 나를 포함한 은호, 기민, 주현은 서울 시내를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다. 우리가 정한 각각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영상소스로 역동적인 화면 구성이 필요했고, 그 구성을 다 채우기 위해 거의 500분이 넘는 촬영을 했다.

물론 우리의 미숙함으로 반복 촬영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2분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선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500분이 넘는 촬영분을 연출 구성에 맞게 편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고, 실컷 촬영해온 신들이 여지없이 버려질 때는 정말 쓸쓸하기도 했다.

작품 마감일이 다가오자 다들 일주일가량을 편집실에서 새우잠으로 보냈다. 특히 마지막까지 부족했던 음향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마감 이틀 동안은 정말 속이 타들어 갔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작품 제출마저 힘들지 않았나 싶다. 어쨌든 우리는 작품을 무사히 제출했고, 미숙함을 만회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심사위원들께 전달되어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다.

다들 상을 받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도 역시 '수상용 멘트'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받게 되니, 정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고맙게 여겨진다. 그래서 정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해주신 김영민 선배님은 더욱 특별하다. 그리고 열정과 노력으로 이 여름을 함께 보낸 팀 동료들 은호, 기민, 주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

정수린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제 9회 대학생영상공모전 수상작

시상	작품명	수상자
최우수작품상	0과1, 온기를 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 정수린, 이기민, 최주현, 김은호
우수작품상	문신사(問身惡)-몸과 생각을 묻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 김우성, 김순, 박대민
	고구려...다시 숨쉬는 역사. 모사도	숙명여대 대학원 영상디자인학과 - 손연선, 조진희, 조명환
장려상	소리에 혼을 넣는 손길	한세대 신문방송학과 - 양현순, 심경용, 변수정, 이금자
	인디가요	서강대 영상대학원 - 강경태, 이원수, 박지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울여자대 언론영상학과 - 김로사
	Paint On The Wall	동아방송대 방송기술학과 - 장정현, 김동욱, 김요석, 한규일

게시판

포상

- ▶ **특종상 은상**
김승재(사회1부) 에이즈 혈액 주사제 유통 취재보도
김석순(사회1부) NF소나타 LPG차량 결함 취재보도
김지영(문화과학부), 원종호(영상취재팀) 마지막 황제손 이구씨의 부인 줄리아여사 취재보도
- ▶ **특종상 동상**
김정현(사회1부) 삼성 휴대전화 오류 검찰에 고발 취재보도
박소정(사회1부) 고속버스노조 직원 채용 과정 비리 취재보도
이만수(사회1부), 강성욱 차장대우(연수) 전경 알몸 사진과문 취재보도
- ▶ **특우수프로그램상**
자동차 강국이 선진국이다 제작팀 '자동차 강국이 선진국이다' 문화예술로 만난 남북 제작팀 '문화예술로 만난 남북'
- ▶ **공로상**
남혁우(타워운영부) 서울타워 전망대 창호 공사 안전관리 공로
김희석(타워운영부) 서울타워 철탑 보수공사 안전관리 공로
지민근(마케팅1부)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캠페인 설의 공로
- ▶ **창의상**
권오진 차장대우·안광연(편성운영팀) 패션 & 스타일 기획·제작 영상편집팀 휴대전화 및 디지털캠코더 웹시스템 창의를
- ▶ **감사패**
김희영 할바초롱 대표 '아직 우리의 해방은 오지 않았다' 기획·제작
이숙주 공주방 대표 추석연휴 전통의상 협찬 10.7
- ▶ **기구개편**
▶ **신설**
신사업추진단, 기획조정실 뉴미디어팀, 보도국 사회부(사회1,2부 업무 통합), 보도국 뉴스총괄단(CQ1, CQ2, CQ3, CQ4), 감사실 감사팀

- ▶ **폐지**
보도국 사회1부, 보도국 사회2부, 보도국 제작팀
- ▶ **변경**
보도국 기동취재팀 → 기동취재부, 보도국 문화과학부 → 문화부, 보도국 편집1,2,3팀 → 뉴스1, 2, 3, 4, 5, 6팀, 보도국 영상특집팀 → 영상기획팀
- ▶ **이관**
기술국 디지털기획부 → 기획조정실 디지털기획팀 10.1
- ▶ **입사**
반창우(문화사업팀) 10.1
- ▶ **퇴사**
홍성보 차장대우(방송심의팀) 9.20 / 황의엽(마케팅 2부) 10.23 / 장병일(총무부) 10.26 / 김현수(국제부) 10.27 / 유경미(국제부) 10.29 / 현정현(타워운영부) 10.31
- ▶ **전보**
제작기술부 조상현 콘텐츠 혁신팀 파견 9.26 / 홍상표 보도국장, 강갑출 신사업추진단장, 김홍규 뉴스총괄단 CQ1, 신동윤 뉴스총괄단 CQ2, 김승환 뉴스총괄단 CQ3, 홍문표 뉴스총괄단 CQ4, 최남수 기획팀장, 한영규 뉴미디어팀장 10.1 / 전용화 디지털기획팀장, 최수호 방송심의팀장 겸 홍보팀장, 강홍식 총무부장, 문중선 기동취재부장, 채문식 정치부장, 김익진 사회부장, 이귀영 문화부장, 추은호 국제부장, 조승호 뉴스1팀장, 방병삼 뉴스2팀장, 유중수 뉴스3팀장, 상수준 뉴스4팀장, 강성웅 뉴스5팀장, 이기정 뉴스6팀장, 김시모 스크롤 뉴스팀장, 조성용 영상취재팀장, 이철용 영상편집팀장, 조항운 영상기획팀장, 박성호 해외방송팀장, 윤두현 해외사업팀장, 조봉환·이재희·김재동 방송심의팀, 강철원·김백 보도국 해설위원, 이한상·주동원·박갑목·남상규·오수학·김종술·조용원 보도국 전문기자, 황성수 스크롤뉴스팀 10.6 / 이병식 기획팀, 호준석·유환홍 뉴미디어팀, 김중균·김기봉·이양희·정유신·이광연 뉴스1팀, 유충식·박영진·신호 뉴스2팀, 김호준·김진호 차장대우·오승엽 뉴스3팀, 김정아·이상순·전기영·김중욱 뉴스4팀, 장민수·이경아·황은숙·뉴스5팀, 김동민·배성준·김신희·이중규·박소정 뉴스6팀,

- 유원권 뉴스총괄단(섭외담당), 원경태 차장대우·장기영·신동훈·이수연·진유진·최진아 뉴스총괄단, 김신영·한정호 편성운영팀, 김문경·최명신 앵커팀, 김학무 차장대우·김주환·최재민·김세호·이재홍·김승재·고한석·구수분·권준기·김석순·이만수·이신아·이승윤·이지은·전준형·송태엽 차장대우·김진우·홍상희·김재형·김명숙·황보선 기동취재부, 신웅진·김태진·김정현 정치부, 김정하 차장·정석영 차장대우·이중수 차장대우·임중주 경제부, 이양현 차장·박근표 차장·지순한·이승은·김진두·한민정·김지현·이상지·정혜윤·양혜경 사회부, 권혁희·김경아 문화부, 김선중 스포츠부, 박상남 차장·김원배 차장 국제부, 한원상 차장대우·최영욱·김학목·하성준·강근배·장명호·나경환·최은석 영상취재팀, 이문세 차장대우·오유철·정희인·김윤석·박진수 영상기획팀, 염해진 차장대우·김인규·염덕선·최용호·박정호·김정원·권혁용·노옥상·양준모 영상편집팀, 기구개편에 의한 일괄발령 기술국 디지털기획부 → 기획조정실 디지털기획팀, 보도국 기동취재팀 → 보도국 기동취재부, 보도국 사회1부·사회2부 → 보도국 사회부, 보도국 문화과학부 → 보도국 문화부, 보도국 영상특집팀 → 보도국 영상기획팀 10.13
- ▶ **부음**
이성모(영상취재팀) 부친상 9.28 / 민부기(타워운영부) 빙모상 9.29 / 성유경(타워운영부) 모친상 9.30
- ▶ **결혼**
이동규(영상취재팀) 9.24 / 강경심(총무부) 10.2 / 유제웅(정치부) 10.16 / 김명우(사회부) · 이승민(앵커팀) 10.22
- ▶ **출산**
호준석(기획팀) 득녀 9.23
- ▶ **YTN DMB**
▶ **전보**
박강희 정책기획팀, 김 신·김형도·이형철 채널운영팀, 서장원·윤남주 데이터서비스팀 9.26 / 최형철 데이터서비스팀 10.4

제2회 YTN 해외리porter 교육

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됐습니다



대사관 근무를 하고 있던 나는 말레이시아 현지 한글신문에 YTN리porter 모집공고를 보고 새로운 세계의 도전으로 리porter

생활을 시작했다. 무작정 방송에 뛰어들어 너무나 생소했고 문외한이었지만 해외방송팀은 스파르타식 리porter 교육으로 특파원과 같은 일을 강요했다. 이메일로, 전화로 매일 한편 이상의 말레이시아 동포뉴스를 방송하는 것은 거의 신기에 가깝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기사 작성하랴, 인터뷰 따라, 사진 찍으러 다니랴, 음성녹음, 급기야 편집까지 해서 FTP 송신을 마치고 새벽을 맞는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알고 싶고 잘하고 싶은 욕망은 더해갔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며 현지 방송사도 방문해 앵커들에게 읽는 요령도 터득해 봤지만 언어가 달라 만족스럽지 못했다. 해외방송팀의 연수초청은 당

연하던 생각을 떠나 너무 늦게 부르는 거라 달갑지 않을 정도였다. 너무도 필요한 교육이었기에 모든 것 물리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다.

언론재단에서 3일간의 연수는 취재 에티켓과 기법, 프로그램 기획, 인터뷰의 이론과 실제, TV뉴스 보도, 방송리포팅, 기사작성법 등을 배웠다. 6mm 카메라 실습시간엔 우리 리porter들의 현지 취재 필름을 보며 엄청난 실수들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황금분할법과 스탠딩시의 노즈룸, 헤드룸, 풋룸 등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쑥쑥 넣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김영진 앵커의 발음연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닐 수 없었다. 욕심 같아선 분장과 편집에도 시간이 할애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 같은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방송에 대해 너무 문외한이라 리porter로서 YTN의 이름을 걸고 내놓는 작품이 스스로에게 죄스러웠다고 할까. 기라성 같은 유명 PD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겪었던 자료와 경험담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끌어준 강의를 통해 그간의 목마른 갈증이 많이 해소돼 기쁘다. 리porter를 하면서 본인의 게으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불타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야겠다. 이제

는 진정한 YTN의 reporter로 새로 태어난 느낌이다. 고국의 파란가을 하늘빛 같은 희망을 안고 제2의 고향으로 향하여 동포사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간 친정에 다니러온 시집간 딸자식 대하듯 너무도 새새한 부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해외방송팀의 여러 식구들, 집에도 못 들어가면서 리porter들 뒷수발하던 그들, 막내 아란이까지...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 5일간 함께 한술밥을 먹으며, 한 숙소에 거하면서, 정은 쌓이고 쌓여졌다. 정말 못 먹어보던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매끼니 때 마다 챙겨주셨고, 돌아가도 군침을 돌리며 그리워할게다. 고국을 떠난 지가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었지만 아직도 변함없는 주도는 역시 인상 깊었다. 폭탄주, 성화봉송주, 인연주, 러브샷 등 글썽 타국에서 새로 나온 이 주법들을 어디에 다 써먹어야할지...

마지막 날은 헤어짐을 예감했던지 아침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하더니 종일토록 부슬거렸다. 사장님 주최 만찬을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낭만을 아는 김팀장님의 추천으로 밤비내리는 한강유람선에 몸을 싣고 고국의 한강을 돌아보며 우리는 헤어짐을 몹시 아쉬워했다.

그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숙희 말레이시아 리porter

교육을 마치고

열정과 실력을 갖춘 해외리porter



첫 만남

일요일 오후 5시. 낮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정덕주입니다.”, “안녕

하세요. 키르기스스탄 전상중입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YTN 해외방송팀 식구들과 해외리porter들 사이의 인사는 30여 분간 계속 이어졌다. 모두들 1년 넘게 같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며 인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글로벌코리아』이라는 공동의 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반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 가족 또는 이웃사촌과 같은 정겨움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한 달 여 넘게 준비해온 리porter 초청 연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열정 빼면 시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해외리porter 초청 연수는 『글로벌코리아』의 제작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YTN의 제작시스템을 이해하고, 방송에 필요한 기타 실무교육으로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언론재단 연수팀 강의와

YTN 현직기자의 강의 그리고 해외방송팀 제작, 녹화 과정 견학 등의 알찬 일정을 준비해 놓고 해외리porter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방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그들 앞에서는 모든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TV뉴스 보도실무와 방송 리포팅 실무 강의를 맡았던 편성운영팀 류희림 부장을 비롯하여, KBS 장해량 PD, MBC 노혁진 PD, KBS 박영환 앵커 등 막강한 강사들조차도 모두 해외 리porter들의 열정과 열의에 혀를 내둘렀다. 그동안 YTN 해외리porter의 역할과 활약에 무관심했던 강사들로서는 그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한낱 새내기 아마추어 리porter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해외리porter들은 다듬어 지지 않았을 뿐, 모두 1년 이상 리포트를 해 온 프로들이었다.

채워도, 채워도 목이 마르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는 50대부터 30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그들은 사실 YTN의 비밀 병기다. 미주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리porter들의 활약은 특히 눈부시다. 이번 교육을 위해 30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온 아르헨티나 정덕주 리porter의 경우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까지 시도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사업차 전 세계를 누비는 키르기스스탄의 전상중 리porter의 경우 조만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방문 예정인데 직접 화상전화를 연결해 현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리porter들은 전문 방송인 못지않은 열정과 실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의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했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를 다하고, YTN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렸다.” 라는 시카고 한명희 리porter의 얘기를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는 왜 YTN은 ‘본사 기자와 특파원만의 활동’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해외 리porter 활용에 미진할까 하는 생각이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긴급 투입되고, 워싱턴에서 특파원이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분명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 폭탄테러 때도 마찬가지였다. 굳이 ‘YTN의 000 기자’가 아니어도 오히려 그 지역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YTN 해외 리porter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해외방송팀의 하루 일과는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끝난다. 출근하자마자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시작하여 LA, 뉴욕, 캐나다를 거쳐 오후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저녁 퇴근 무렵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끝으로 하루를 마무리 한다. 어찌 보면 단 하루 만에 전 세계를 도는 셈인데 이는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뭉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부분 아마추어이긴 해도 이제는 아무도 해외리porter들을 아마추어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프로 정신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미 시청자의 가슴에 전파되어 박수를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 자신이 전 세계 670만 재외동포들의 산 역사(歷史) 임을... 『글로벌 코리아, 파이팅!!』
조민철 (해외방송팀)

NEW YTN CI 워크숍



뉴스경쟁력 제고를 위한 'NEW YTN CI 워크숍'이 10월 15일 양재동에 있는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표완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워크숍은 유한김벌리 문국현 사장의 특강 '21세기 메가트렌드와 우리의 과제'와 6개 뉴스팀장의 프로그램 구성안 발표, 보도국장의 보도국 운영방안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홍상표 보도국장은 "콘텐츠 혁신의 핵심은 YTN이 우리 사회의 중심 이슈들을 다양한 포맷으로 집중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의제 설정을 선도하는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어보자는 것"이라며 "기존의 형식과 관행을 깨는 것은 어렵지만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자"고 말했다. 워크숍 2부 순서인 족구시합은 12개 팀으로 나눠 경기를 펼쳤고 기술국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워크숍 참가기

함께 꾸는 꿈은 현실



오늘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기동취재부 기자 이선아'. '기동'은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재빠르게 하는 행동'이란 뜻입니다. 평소 행동이 심

하게 느려서 'SNG' 혹은 '더블 SNG'라는 별명을 얻은 제가 과연 기동취재부원으로서 한 몫 잘 해 낼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바로 '조직적'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부장부터 막내 9기들까지 한 마음으로 움직이다보면 저도 언젠가는 재빠른, 아니 적어도 업그레이드된 SNG까지

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동'이 가진 또 하나의 뜻은 '부대나 병기 등을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전개·운용하는 일'입니다. 기자들이 취재해 온 팩트, 영상, 녹취를 무엇 하나 버리지 않고 새 그릇에 새롭게 담아내자는 것이 이번 콘텐츠 혁신의 뼈대라는 점을 생각할 때, 건방지게도 역시 '기동취재'가 그 선봉에서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동취재부 가동 첫 날, 이진영의 대포 통장 보도와 제 가짜 신분증 보도가 묶여서 나가기로 했을 때, 참 설레었습니다. 지은이가 그 기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시경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단신에, 전화 원고에 리포트까지, 모 선배의 표현을 빌자면 '썩썩' 써댔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기동의 참뜻은 (적어도 기동취재부에서는) '스피드' 보다는 '조직'에 무게가 실리는 게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콘텐츠 혁신의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첫 설명회 때에는 샘플만 보고 그저 '우리 뉴스가 좀 더 역동적이 되겠다.' 하고 짐작만 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하루하루 지시 사항에 따르기 바쁘고, 리포트를 제 시간에 맞추는 데 급급한 초보 기자니까요. 하지만 워크숍을 다녀와서 저는 신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져서 신났습니다. 더 나아가 선배·동기들 모두가 이 열띤 변화의 파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신났습니다. 특히 워크숍에서, 밥 때를 잊은 채 끊임없이 쏟아지는 선배들의 질문과 건의에 더 나은 뉴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선배들이 10년 동안 간직했던 꿈, 저희 막내들이 10개월 동안 간직했던 꿈이 현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선아(기동취재부)